



등급정보 (계란) *

▷ 24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166만4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89.5%, 1등급은 7.7%, 2등급은 1.6%, 3등급은 1.2%를 차지, 전월대비 18만1천개(0.6%) 감소, 전년동기(19개 업체, 2천526만9천개)대비 639만5천개(25.3%) 증가, 금월누계는 6천350만9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1천92만1천개(20.8%)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10년 1~2월	63,509	57,955	91.3	3,782	6.0	752	1.2	1,020	1.6
'10년 1월	31,845	29,613	93.0	1,347	4.2	245	0.8	640	2.0
'10년 2월	31,664	28,342	89.5	2,435	7.7	508	1.6	380	1.2
왕란	226	163	72.0	63	28.0	-	-	-	-
특란	23,323	21,311	91.4	1,906	8.2	92	0.4	15	0.1
대란	8,115	6,868	84.6	466	5.7	416	5.1	365	4.5
중란	-	-	-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

농가 의견수렴

농림부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을 준비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을 농가에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용란판매업 신설과 부화업 등 위생관리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란·초생추·산란계에 대한 살모넬라(SE) 검사와 식용란 포장·보관·유통을 행하는 양계장·집하장·유통상에 대한 위생관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가 식용란(달·오리·메추리알)의 신선도 등을 지적해 오면서 보존·유통기준, 표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SE를 법정질병으로 지정해 감염된 산란계를 도태와 이동통제 등으로 효과적인 확산차단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 '가금분야 생산비용 절감 TF' 회의 가져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가 지난 3월 2일 과천 정부청사 농식품부 소회의실에서 첫 '가금분야 생산비용 절감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TF팀은 팀 발족과 동시에 시급한 부분, 제도개선 부분, 중장기 R&D부분 등으로 나누어 생산비 절감에 매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우선 생산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방식으로 모으기로 했다. 또한 생산비절감 우수농가 사례를 발굴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의 경우 중계산업 중 질병이 가장 먼저 제기됐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중계장에 제도개선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과학원은 공동으로 시설개선 집중사업에 힘쓰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해 농가대상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 캠페인 중장기 R&D사업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역할 분담과 실행계획을 세워 3월 중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